**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2,
소개(계속)**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세션 2입니다. 소개는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말씀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심장 박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카 보드 아도나이(Kabod Adonai), 신성한 임재, 전능하신 분의 영광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고 넘쳐흐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이 의와 공의가 함께 모여 궁극적으로 경험되는 날을 갈망할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일을 더욱 진전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일을 완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비와 정의, 변함없는 사랑에 관심을 갖도록 백성을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른 여러 예비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대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사건과 예측에 대한 아이디어가 종종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메시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칠 때 히브리인들이 우리에게 선지자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경의 중앙에 두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타나크(Tanakh)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서점에 가서 히브리어 성경 한 권을 사고 싶습니다.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Tanak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영어와 히브리어와 행간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의미합니다.

세 단어, Tanakh의 약어입니다. 타나크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선지자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네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사도를 시작으로 후기 선지자들은 단지 규모 때문에 12사도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들을 살펴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대선지서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나 메시지보다 열등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단계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자체에는 선지자들이 때때로 그들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사야 30장 8절은 선지자들이 기록할 수 있었고 종종 기록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정의에 따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 자신은 확실히 토라가 지시하는 대로 다양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성경 연구에서 10,000달러짜리 단어인 amanuensis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수동이라는 말은 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중 A는 바룩을 자신의 개인 비서이자 서기관으로 사용한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36장 4절에는 바룩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받아 적는 동안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 물론 바울은 특정한 경우에 서기관을 고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중 하나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편지를 쓴 것을 보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서기관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실바누스(Sylvanus)가 언급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유대 전통에서 바울은 비서나 서기관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서 자료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러한 예언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들었습니다.

현대 세계와 마찬가지로 빌리 그레함처럼 국제적으로 알려진 위대한 전도자가 팀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의 일부이며 일 년에 여러 번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단어와 이야기 등에 매우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탈 무딤은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곳에 알려져 있으며, 탈무딤은 제자 또는 학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어 뒤에 있는 것은 LMD, 즉 세 글자입니다. 어근은 배우다, 훈련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좀 더 강한 어간으로 사용되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매달린 학습자나 제자들이었으며 그 말씀 중 일부를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지자의 일부 학자들이 선지자의 글 뒤에 특정 내용을 기록하고 심지어 추가하는 데 도구가 되었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집단적 인격으로서 확장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죽음.

세 번째 단계의 전달에는 수집가가 아마도 선지자가 죽은 후, 때로는 다른 경우에는 즉시, 심지어 수세기에 걸쳐 신앙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수집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수집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맙시다.

희망과 판단을 엮어보자. 그들은 컬렉션에 신탁과 다양한 예언적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들의 글,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 방식처럼 엄격한 연대순 접근 방식을 시도하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 A를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선지자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사야의 부르심, 위임에 대해 어디서 읽습니까? 6장에 있죠, 그렇죠? 1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을 읽고 싶다면 예레미야 1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이사야의 경우에는 이미 책의 다섯 장을 읽었으며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언적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언 문학 전달의 네 번째 단계에는 편집자나 편집자가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는 때때로 편집자로 불리며, 편집자는 컬렉션을 최종 형태로 만듭니다.

어쩌면 추가적인 역사적 자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오경에서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국제 정치 수업에서 네 왕이 다섯 왕에 맞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해 부근의 왕들이 반역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지방의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롯을 붙잡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끝나나요? 그들은 롯을 댄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아브람이 그를 구출한 곳인 단입니다. 글쎄요, 창세기에서 아시다시피 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고, 이삭이 있을 것이고, 야곱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 중 단을 낳았으나 아브람이 그를 구출할 당시 그곳은 단이라고 불리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자는 특정 추가 역사적 세부 사항을 형성하거나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34장인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모자이크 이후에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모세의 저작임을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장례식과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해 기계적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역동성과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손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권위나, 실제로 그들의 신성한 영감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신탁의 배열과 편집, 즉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발견하는 많은 자료는 아마도 유대 민족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소 대규모 편집을 거쳐 시편의 순서를 다섯 권의 책으로 정리했을 것입니다. 오경. 어쩌면 시편 1편이 다른 시편들과 함께 떠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배열을 보고 절정에 이르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50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찬송가의 절정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자체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존재했을 때 그러한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편집자나 편집자는 성경 역사의 일부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는 손에 큰 칼을 들고 성경을 색종이 조각으로 자르고 결국에는 본문을 과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훼손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진실한 것에서 그 많은 부분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가 복음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만한 몇 가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글쎄, 그게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된 아주 느슨한 신약성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의 전제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에 따라 우리는 매우 주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유익하고 신뢰할 만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익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용어.

성경에는 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모세에게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지만 신명기 33 :1에서 처음으로 모세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임기는 군주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품성과 윤리와 높은 영적 원칙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항상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소개소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예비 선지자가 여기에서 귀하의 지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나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바로에게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 네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

이사야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바로 그 구절에서 알다시피, 당신은 이 백성에게로 갈 것이며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차가워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청동 문을 부수려고 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약속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다면 그것을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이 매우 어려운 일을 위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은 그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름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Amar 때문에 그건 지정이었어. 아도나이는 종종 그들의 공식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르심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선지자서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나의 종, 너의 종, 선지자들'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구약성서 학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조셉 영(Edward Joseph Young), EJ 영(EJ Young)이 도서관에 그의 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종 선지자들(My Servants the Prophets)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 제목을 따서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선지자와 매우 자주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맨틀이 임할 때에도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안수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위임은 민수기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독교 신앙의 유대적 뿌리가 매우 중요한 방식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꽤 자주 읽은 것처럼 안수법을 창안하지 않았으며, 바울이 쓴 것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역을 시작하는 초보자가 되지 말고 약간의 경험을 가지십시오. 당신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줄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 나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이여, 인생에서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습니까? 택시를 운전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손을 얹기 위해 여기에 오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비참해질 것이라는 신성한 강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모세가 묘사한 방식, 즉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종이 되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국을 건설하거나 인기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선지자에 대한 세 번째 일반적인 표현인 말라크 야훼(Malach Yahweh)는 왕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멜렉(Melek)과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라크 야훼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말라크는 때로 천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안젤로스(Angelos), 두 감마가 합쳐져 영어로 NG, 히브리어로 안젤로스(Angelos) 또는 말라크(Malach)와 같은 이유입니다. 천사 또는 사자, 주님의 천사 또는 주님의 사자. 그리고 선지자들은 주님의 영적 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개 1.13에 나오는 이 제목은 학개를 말라크 야훼로 묘사하는데, 그는 우체부처럼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입니다. 비록 모든 비유가 어딘가에서 무너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체부와 선지자 사이의 상당히 좋은 현대적 비유입니다.

우체부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편배달부가 배달하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편배달원을 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인기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오실 세례 요한의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사용되는데, 그는 여러 면에서 예언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는 광야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떤 구절을 보느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구두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한은 사람들에게 의식용 침수 웅덩이인 미크베오트(mikveot)에 들어가 회개 하고 세례를 받고 물이 흐르는 요르단 강에서 행하도록 부르는 메신저였습니다.

큰 발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웠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착하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용어 중 일부입니다.

선지자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 중 일부입니다. 나비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셈족 언어 간의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랍어에서는 네비가 선지자를 뜻합니다.

예루살렘 대학교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고든 칼리지 학생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네비 사무엘(Nebi Samuel)이라는 건물 옥상에 앉을 기회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어원학적으로 학자들은 Navi라는 단어에 대해 다양한 유래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braham Joshua Heschel은 Navi라는 단어가 Akkadian에서 발견되는 셈어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그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셈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세계,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들이 설형 문자로 기록했던 예루살렘 바로 동쪽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셈어인 아카드어(Akkadian)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계곡 하류에 있던 도시 국가였던 아카드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나 아카드어로 Nabu는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사 형태는 연설자 또는 대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셸은 선지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소명을 지닌 자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명(vocation)이 사람들의 목소리인 복스 포퓰리(vox populi), 소명(vocation)을 가리키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대변인,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Heschel이 제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바로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세의 경우에 아름답게 예시되어 있으며, 그래서 아론은 두들겨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의 그림이고 흐름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 경우 모세는 하나님 같고, 아론은 선지자 같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론이 바로에게 말씀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신권에서는 흐름이 반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대표했기 때문에 백성은 제사장에게 왔고, 제사장은 중개자였습니다.

성직자를 묘사하는 가장 좋은 고대 버전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인 폰티펙스(Pontifex)입니다. 말 그대로 라틴어 폰스 폰투스(Pons Pontus)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리를 건설하거나 만드는 것이 교황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폰티펙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웠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단어 그림이며 아마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번역을 다루는 모든 언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어 그림일 것입니다. 흐름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지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중개자나 우체부에게 전달하실 뿐입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에 여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은 어떻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희 두 사람의 말을 도와서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인즉 그가 너의 입인 것 같겠고 네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 같으리라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이 네 나비가 되리라 그는 실제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흐름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보다 신성한 상위자에게서 나옵니다. 네비의 사진입니다.

물론 고전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첫 장에서 나비가 하는 일에 대해 같은 종류의 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나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세요, 저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비가 하는 일을 아는 것 같았는데, 보세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을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 가며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비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Jeremiah 1.9에는 Navi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확실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좋든 나쁘든, 심판이든 희망이든, 메시아이든, 사회 정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Navi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말을 하려는 것 뿐이고 그게 나비의 전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구약성서에는 여성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다.

훌다도 그들 중 한 사람이며 예루살렘에서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산 남쪽 테라스로 올라가면 훌다문이 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신성한 장상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무엇이든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간의 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도구, 교육, 배경, 단어에 대한 지식, 역사적 배경, 조사, 기억 및 개인적인 문학적 스타일을 통해 인간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는 신비한 신과 인간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진보적이거나 좌파로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성경을 순전히 인간의 문학적 문서로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신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하다는 역설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들은 교회 역사에서 때때로 성경 기자들을 법정에 앉아 개인에 대한 이해 없이 기록하고 받아쓰기로 모든 것을 받아 적는 속기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가.

특히 문학적 스타일에 있어서, 신약성서에서 다른 복음 전도자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한 세리였습니다.

남자 이름. 누구보다 여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루크인데,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여성들과 접촉했을 것이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말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는 Mark가 그 세부 사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곳에 '훌륭하다'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작가의 상황에 맞는 배경과 관심을 허락하시고 그 선택을 인도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Navi에 대해 이러한 구절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빨리, 두 개의 다른 용어 인 로에 (Roeh)를 시편 23장 1절의 시작 부분인 여호와 로에(Adonai Roeh) 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 다른 단어입니다. 로에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로에 입니다 . 선견자를 뜻하는 단어로, 본다는 뜻의 기본 1학년 히브리어 어근인 라아(Ra'ah) 에서 유래했습니다. 선견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는보고.

먹는 사람은 무엇을합니까? 그는 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이 분사 형태, 즉 그것을 능동적인 분사 형태로 보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은 로에 의 탁월한 인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는 것이 강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동의어는 Hoseh 입니다 . 호세(Hoseh)는 히브리어로 능동분사 중 또 다른 하나로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계시를 실제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밤에 여덟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모스 7-9장으로 가세요.

당신은 이스라엘과 북쪽 왕국과 그 상태에 대한 다섯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확실히 선지자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뒤에는 아마도 단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예언적 비전을 통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올 것입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선지자가 자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가 그 한 예입니다. 요나서는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공교롭게도 시적인데,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 3, 4장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포물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아모스 7장에는 작은 삽화가 있는데, 아모스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아모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 지역 드고아 출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있는 북왕국의 주요 신전 중 하나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샤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샤와 약간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Amaziah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양 떼를 따르던 나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것은 그의 자격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신학교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창녀가 될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와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꽤 씁쓸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왕국의 신전에서 전하기에는 아주,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도 포함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는 신약의 고린도후서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자서전적인 편지이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그 예로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파선을 당하고 39대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통찰은 고린도후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조금 명명되었습니다. 젊은이로서 유대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었으며, 자신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인 바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얻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가 학사였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예레미야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약간 흥미로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 정통 유대교 결혼식을 본 적이 있거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나, 화요일에 예루살렘의 호텔에 가더라도, 정통 유대교 결혼식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은 예루살렘에서 여행 그룹을 가졌는데, 결혼식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화요일에 우리는 우리가 묵었던 호텔을 예약한 네 사람을 포함해 여덟 번의 결혼식 파티를 만났습니다.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신부가 신랑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짧은 표현이 예레미야에게서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을 껴안고 일곱 바퀴를 돈다. 나는 정교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정교회 결혼식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말하길, 당신은 여러 번 변할 것이고, 모든 각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잘 살펴보세요.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내 생각에 그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혼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다소 마지못해 반성한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상징이자 표징이 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58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문학적 형태의 예언은 성경에 내러티브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화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좌에서 하박국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하박국서는 대화라는 의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하박국을 철학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어둠 속으로 불러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의 언약에 비추어 볼 때 전능자에게 묻고 싶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에 비해 우상 숭배를 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는 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은 대답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일종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질문과 대답이 있는 말라기의 다른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것과 동일한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자료와 문학적 형식은 신탁입니다. 선지자들은 폭탄을 날리고 신학적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부 전도자들이 때때로 교회에 가서 목사들이 그 조각들을 주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탁 중 다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40일 안에 니네베는 멸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분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연설입니다.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신탁을 준 미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공의를 알지 못하겠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내 백성의 살을 쪼개는도다 냄비에 넣을 고기, 냄비에 넣을 고기처럼요.

그는 당신들의 지도자들이 희생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식인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과장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최고입니다. 예, 비유적입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극적입니다. 이들은 오라클입니다.

환상의 또 다른 문학적 형태는 묵시적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별도의 문학 장르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4~27장, 스가랴서 및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겔 37장, 다가올 환상, 묵시적인 환상;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곧 오셔서 땅을 정화하기 위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백성의 악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주어진 비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적 형식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바빌론의 묘지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묘사하지만 뼈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육체에 힘줄을 두셨으니 그것이 살아나 곧 부활이니라. 요약하자면, 예언적 가르침의 두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가 행한 일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는 비난하고 시정했으며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도덕적인 의로움과 책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의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종교적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서의 처음 네 권의 책에서 같은 일을 좋아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위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개혁, 노예 생활, 술 취함, 통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전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영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바알과 함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었으며, 유산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모세의 높고 숭고한 원칙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며, 의식보다는 사회 개혁과 윤리에 더 중점을 두었고 성전 예배를 더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신랄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1-39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꽤 많은 판단. 그런 다음 그는 40장,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합니다.

칠십인역에서는 위로라는 단어를 뜻하는 파라칼레오(parakaleo)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요한복음에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움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 옆으로 부르는 사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언약을 집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재난이 임박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종종 쓴맛의 균형을 맞추는 달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포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이 종료됩니다.

70년이군요. 당신은 집에오고있다. 희망이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희망은 땅에서 악이 제거된다는 소식을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불의, 하박국의 말을 빌리자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젠가는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국가들이 더 이상 전쟁 훈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파괴적인 전쟁 기술은 제거될 것입니다. 혹은 스가랴의 말대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

그분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형상인 양과 함께 누워 있는 사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느니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혹한 시정과 심판의 손길은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한 격려와 희망으로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 다른 소개 내용을 갖고 나서, 자신을 선지자로 가장하는 거짓 선지자와는 반대로 참되고 선의의 선지자의 특성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아직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의 뜻에 따라 금요일에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세션 2입니다. 소개 계속됩니다.